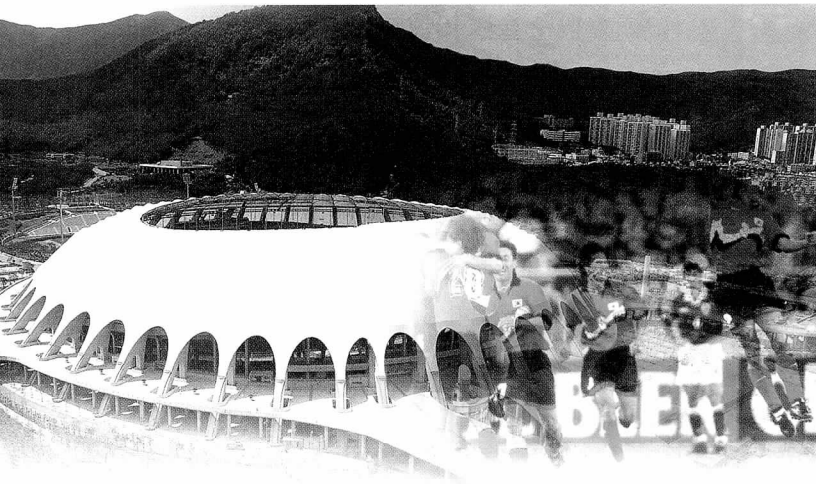


포스트 월드컵 남은 과제는

신현암/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2년 월드컵이 「축구 4강」, 「거리응원을 통한 국민 단합」, 「국가 이미지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서 6월 30일에 폐막되었다. 이번 월드컵은 연인원 600억명 이상이 TV를 시청한, 역대 스포츠대회 사상 최대의 이벤트였다. 게다가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움을 전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뉴욕 타임즈는 “이번 월드컵 경기의 초점은 축구 자체가 아니라 한국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승리를 거듭할수록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감탄하였다. 심지어 골드만 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짐 오닐은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과 터키가 4강에 진출한 것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국가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알리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히딩크 리더십을 배우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BSR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혈연(Blood), 학연(School), 지연(Region)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를 배제하여야만 나라가 잘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떠날 때에는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했으며, 그 또한 「good bye(안녕)」가 아닌 「so long(다음에 보자)」으로 인사함으로써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추었다. 하멜 표류기가 다시 화제로 떠오르는 등, 네덜란드와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해 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현재의 성과에 만족해서는 곤란

하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뛰어 넘어 '월드컵 개최효과'의 지속화'라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입각, 전체 사회에 실익이 되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첫째, 펀더멘탈(fundamental)의 강화이다. 히딩크 감독은 '조직 전술 훈련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주위의 여론을 무시하고, 기초체력 강화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는 90분간의 경기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다. 4강의 원동력은 조직 전술력이 아니었다. 바로 기초체력이었다.

기조를 다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초석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돌아가는 길'인 듯 보여도, 실은 한국사회가 선진수준에 도달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을 할 때도 그렇다. 무조건 빨리만 하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수정하느라고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우리는 그간 한강의 기적을 자랑해 왔다. 전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그렇지만 압축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90년대 초반 신도시 건설계획이, 당시에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오늘날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페어 플레이의 체화이다.

스포츠를 살펴보자. 축구, 레슬링처럼 신체적 접촉이 심한 운동일수록 규칙이 엄격하다. 규칙은 모든 선수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퇴장을 당할 정도로 심한 제재

가 내려진다. 배구나 야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셈이다.

기업경쟁의 양태도 마치 축구시합을 하듯, 「뒤엉킴」이 심해졌다. 해외 일류기업들이 언제 우리의 전장에 뛰어들지 모른다. 아니 이미 많은 산업분야에서 그들과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리스크(risk)가 일상화된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사소한 의사결정의 실수가 순식간에 기업파산으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몸싸움이 심한 운동일수록 파울에 대한 벌칙이 크듯이, 경쟁이 심할수록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강도가 높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우리도 기업의 투명성, 윤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여 문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셋째, 고급화 전략의 수행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인이 감탄한 것은 한국의 응원문화이다. 전 국민이 붉은 옷을 입고 응원하는 것도 대단했지만, 응원 종료 후 삼삼오오 모여 거리를 정돈하는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IMF를 겪었던 나라, 민족간의 전쟁을 치렀던 나라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다. 게다가 개막식 때 보여준 한국의 IT능력은 정보강국의 가능성을 전세계에 확신시켜 주었다.

기업은 업그레이드(up-grade)된 국가 이미지를 자사 제품의 브랜드력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상품으로는 더 이상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 이미 전세계 제조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보급형 제품의 시장을 장악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선진국과 동등하게 브랜드력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저 가격을 몇 퍼센트 올렸다고 해서 그 제품이 고급품으로 변신할 수는 없다. 품질력, 디자인력, A/S력이 뒷받침하여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고급품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Made In Korea」라는 단어가 전세계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대기업부터 과감히 고급품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선진기업들과 품질과 첨단제품으로 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도 함께 올라간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제품들도 덩달아 고급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넷째, 건전한 여가문화 구축이다.

월드컵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는 현장의 생산성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름 휴가기간과 겹치면서 오히려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기업도 일부 등장하였다. 여름철 내내 어수선하게 보내기 보다, 차라리 휴가라도 빨리 다녀오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교육지책이다.

월드컵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놀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활동의 중심에 ‘일(work)’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과 여가의 공존이 일상화된 선진국 국민들은 축제 후에도 곧바로 본업으로 돌아가는데 익숙한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생산적 여가 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발, 확산하여 일과 여가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을 유연하게 전환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5일 근무시대에도 「월요일」이 나타나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3일 반에 불과할 수 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마음이 들떠 있기 마련이다).

여가시간을 자기개발, 자원봉사, 취미활동 등 건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향후 주5일 근무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주말 라이프스타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개발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시대의 지친 삶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은퇴 이후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의 삶.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할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10년을 버티기 힘들다. 우리는 은퇴 후에 최소한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된다. 쉬는 시간 틈틈이 자기의 노년시절을 그려보는 것도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한 방법이다.

이번 월드컵 행사를 통해 우리는 정치, 경제 분야의 패배주의, 서구 콤플렉스 등에서 벗어나 ‘우리도 할 수 있다(can-do)’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러한 자신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붉은 악마가 보여 주었던 문구를 상기해 보자.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다.

자신감은 분명 성공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그럴 만한 저력이 있다.

위의 4가지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면, 그 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이다.